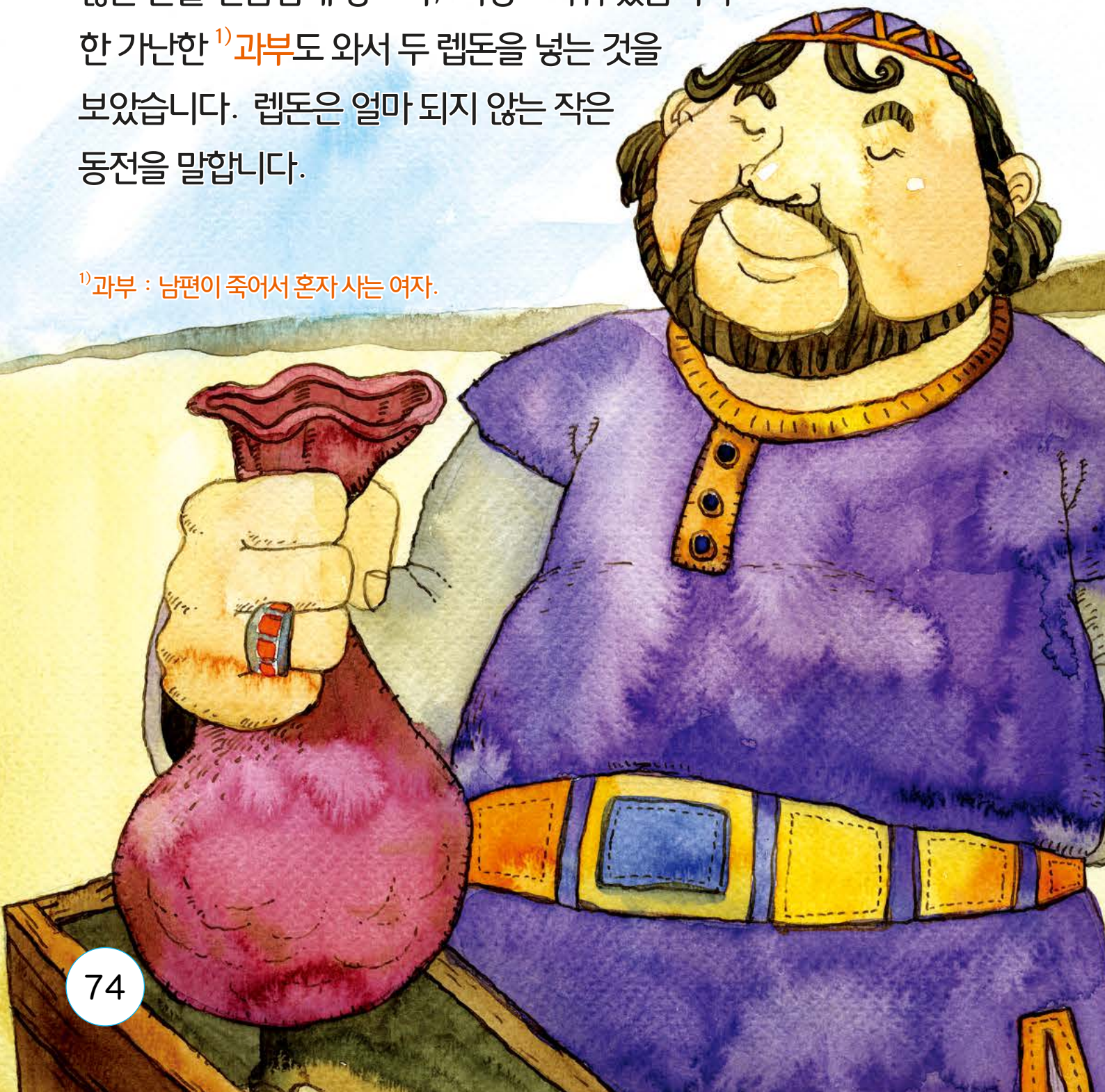


35과 과부의 두 렵돈 (한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놓여 있는 상자에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부자들이 와서
많은 돈을 헌금함에 넣으며,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한 가난한 ¹⁾과부도 와서 두 렵돈을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렵돈은 얼마 되지 않는 작은
동전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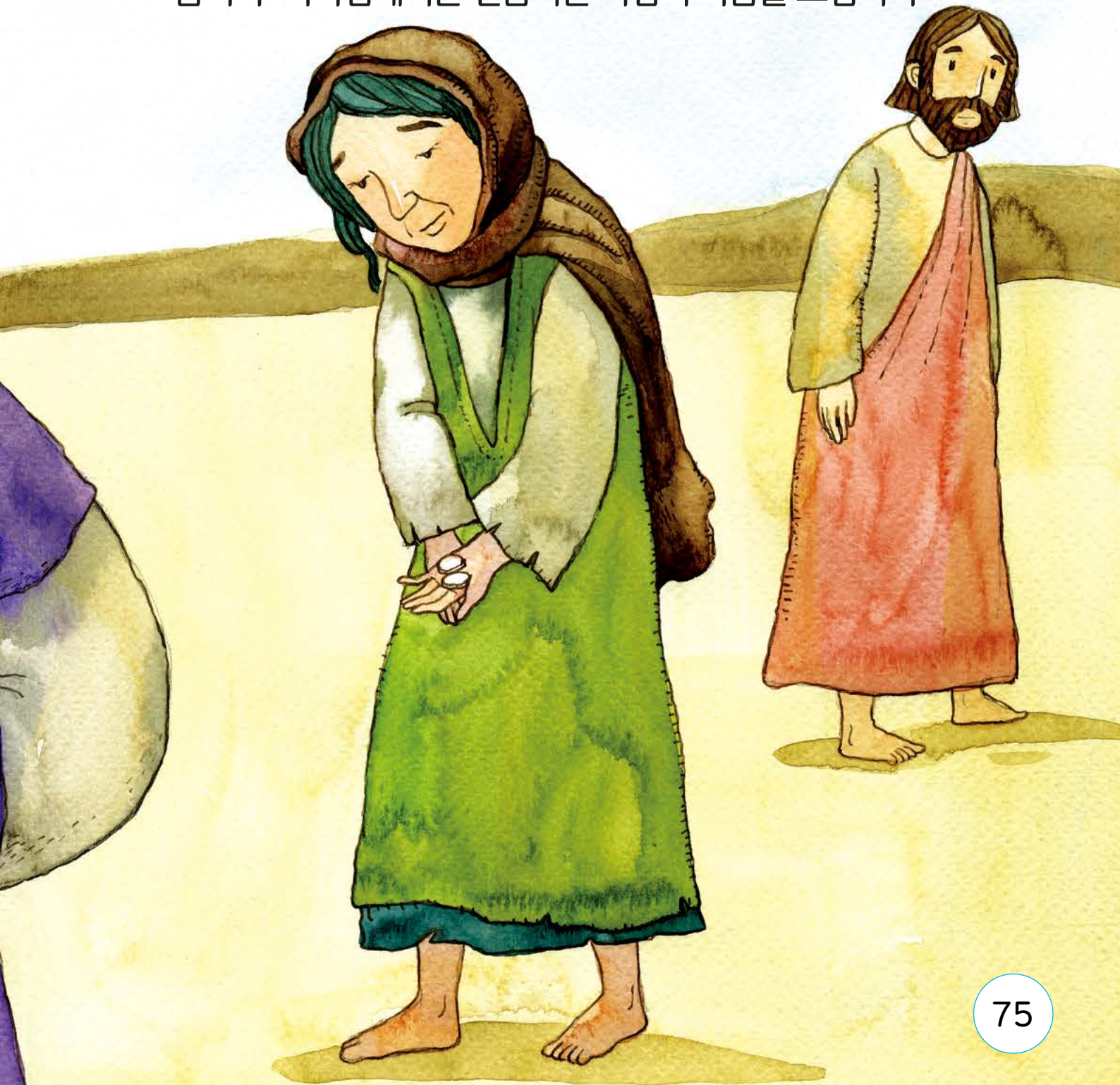
¹⁾과부 : 남편이 죽어서 혼자 사는 여자.



“이 여자가 부자보다 더 많이 헌금했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많은 재산 중에서 일부를 헌금했지만, 과부는 가진 돈 전부를 헌금했단다. 그래서 이 과부가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교제해요

1. 예수님께서서는 두 사람 중 어떤 사람이 더 많이 헌금한 것이라고 하셨나요? ()



① 부자



② 과부

2.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적은 돈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을 몇 가지나 적을 수 있나요?

1. 숨쉴 수 있는 공기를 주셨어요.

2.

3.

4.

5.

6.

우와!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 이렇게 많군요.
이제 기쁜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어요!

암송

암송을 따라 써요.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4절)

기도하는 어린이



하나님!

헌금할 때마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어린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기도

알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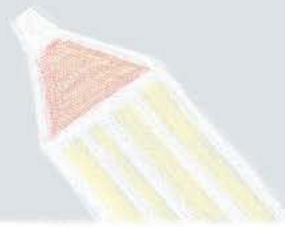
헌금에 대하여



사람은 돈이 생기면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헌금은 그것을 인정하는 작은 표시라고 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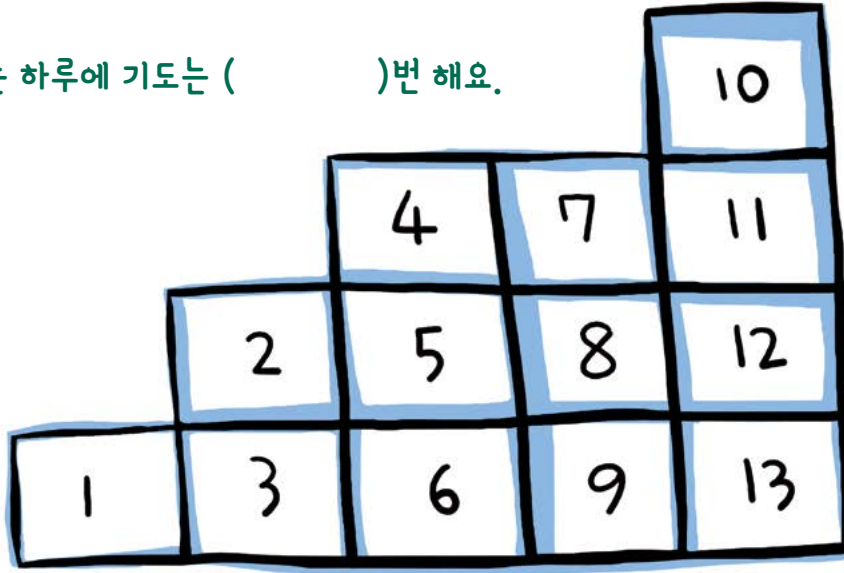
부모님이 헌금하라고 주시니까 그냥 한다고 생각하면
별로 값진 헌금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하는 어린이를 더욱 기뻐하세요. 내가
심부름을 해서 생긴 용돈으로 헌금을 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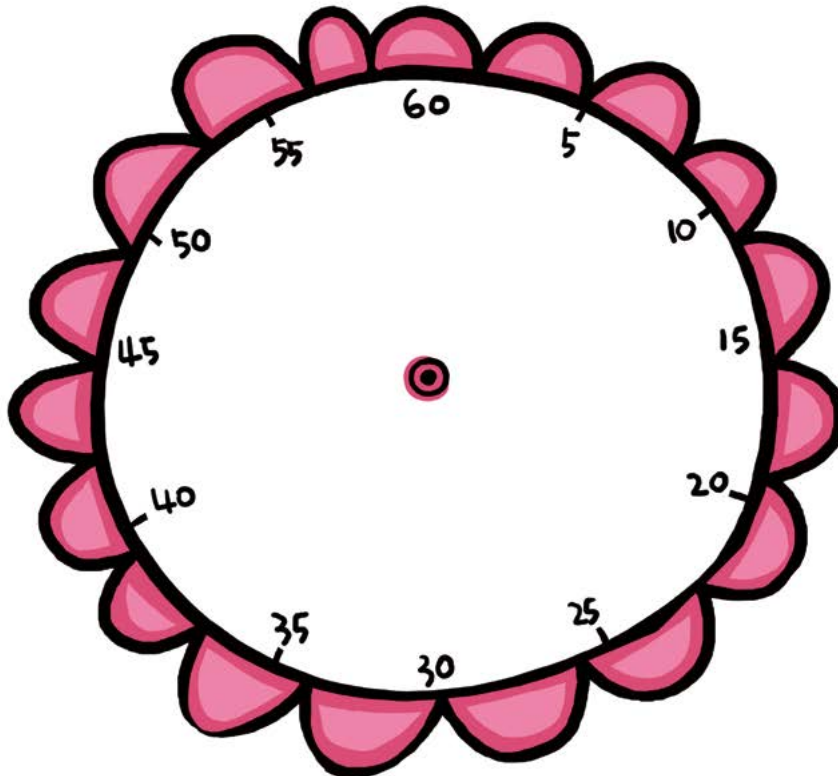
색칠하기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려요, 숫자만큼 색칠하세요.

나는 하루에 기도는 ()번 해요.



내가 하루에 말씀 읽는 시간은 ()분이에요.



집에서 실천하기

내가 직접 모은 용돈으로 현금을 해요.

신발 정리, 청소, 안마를 해 드리고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요.



신발 정리 : 500원



청소하기 : 500원



안마 해 드리기 : 500원

확 인 란

선생님께

부모님께